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한-터키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분석



2012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해양산업경영학과

김 희 연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한-터키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분석

지도교수 박성쾌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해양산업경영학과

김희연

김희연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2월 ○○일



주 심 경제학박사 정 일 정



위 원 환경경제학박사 조 정 희



위 원 경제학박사 박 성 쾌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II. 선행연구	5
1. 지역무역협정의 이론적 연구	5
2. 실증 분석에 관한 연구	11
3. 관세율 할당제의 이론 및 실증적 연구	14
III. 이론적 배경	17
1. FTA(자유무역협정)와 관세동맹	18
2. TRQ(Tariff Rate Quota)제도	22
IV. 한-터키 양국의 경제 관계	27
1. 한국과 터키의 교역 규모 분석	27
2. 한국과 터키의 수산물 교역 규모 분석	31
3. 터키와 한국의 FTA 체결 현황 분석	35
4. 터키와 한국의 수입관세 비교	39
V. 실증 분석	41
1. 분석 모형	41
2.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 대상 선정	44
3. 수출입 수요 함수 추정 결과	48
4. 관세 감축 영향 분석 결과	50
5. 관세율 할당제 시나리오 분석 결과	52
VI. 결론	59
참고문헌	62

표 목차

(표 1) 주요 지역협력 방식별 협력수준	7
(표 2) 2010년 RTA 현황	8
(표 3) 한국의 대터키 10대 수출품목	28
(표 4) 한국의 대터키 10대 수입품목	30
(표 5) 한국과 터키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 (2001-2010)	31
(표 6) 2001-2010년 터키에서 수입되는 품목	32
(표 7) 2001-2010년 터키로 수출되는 품목	35
(표 8) 한국의 FTA 체결 현황	36
(표 9) 터키의 FTA 체결 현황	38
(표 10) 한국과 터키의 주요 교역 품목 관세	39
(표 11) 수출입 중대효과 분석 대상 품목	47
(표 12) 수출수요함수 추정결과	48
(표 13) 수입수요함수 추정 결과	49
(표 14)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50
(표 15)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 증대	51
(표 16) TRQ로 인한 수출 증대	53
(표 17) TRQ로 인한 수입 증대	55

그림 목차

(그림 1) 자유 무역의 효과	20
(그림 2) 관세 동맹의 효과	21
(그림 3) TRQ제도의 경제적 의미	24
(그림 4) 4가지 초과수입수요조건	26
(그림 5) 한국의 대터키 수출입 추이(2001-2010)	28



Economic Impacts of Korea–Turkey Free Trade Agreement on the Fisheries Sector

Hee yeon, Kim

Department of Marine Business and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Turkey Free Trade Agreement(FTA) on the Fisheries Sector. In this paper, the impact of Korea–Turkey FTA on the Fisheries Sector is analyzed in the Partial Equilibrium Framework.

To calculate the result, the study estimated the demand functions of 2001–2010 average imported fisheries product. Demand functions consist of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Q_{jt}) is import volume in 2001–2010.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import price(P_{jt}), national income per person(Y_t), import volume of items in the previous year(Q_{t-1}), and error terms of items(ε_{jt}).

Under the Partial Equilibrium, tariff reductions (abolition) decrease the price of domestic products so import volume is increase. This increase volume and price are estimated by price elasticity from the

fisheries product demand function. To analysis tariff rate quota effect by quota set that range average volume 2001–2010 between average volume $\pm 25\%$, $\pm 50\%$ and tariff set for exceeding quota that is range tariff zero between tariff $\pm 25\%$, $\pm 50\%$.

TRQ effec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how the quota and the tariff reduction are set and combined. In general, TRQs are more flexible than tariff adjustments. TRQs may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protection of sensitive products and at the same time products with a comparative advantage may promote expo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establishing an FTA between two countries may not exert much adverse effects on fisheries as a whole because relative and/or absolute fisheries weight of the two countries are very small. However, depending on the sensitivity of individual fish and fish products, they may have much political implications.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95년 1월 기존의 GATT를 대신한 WTO가 출범하여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의한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의 소다자적 협정(minilateral agreements)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자주의적 무역자유화를 고수하며 지역무역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시장개방을 통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EU(European Union), 미국 그리고 인도와의 FTA를 발효하였고, 페루와는 협상을 타결하여 발효 준비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와 FTA 체결 준비 중에 있다. FTA 확산에 대해 Bhagwati(1993)은 FTA 즉, 지역 무역협정(RTA)이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한 디딤돌(building blocks)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오히려 걸림돌(stumbling blocks)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FTA 체결은 점차 증가하여 지난 2007년 발효된 RTA가 205건이며 그중 FTA가 126건 이었던 것과 현재 2010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최근 3년간 RTA가 81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FTA의 증가 건수가 42건으로 전체 증가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RTA는 FTA 형태가 가장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터키는 1992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2007년 그루지아에 이르기까지 13개 국가와 이미 FTA를 발효시켰다. ECO¹⁾ 및 몬테네그로와는 각각 2003년과 2008년 서명을 마치고 국내 비준 중에 있다. 특히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중요한 지리·경제·정치적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나라와 터키 간 교역규모가 크지 않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EU,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다. 현재 한·터키 FTA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터키가 서두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도 터키와의 FTA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세계 50개국과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터키는 EU와 관세동맹으로 공동역외관세를 운영하고 있어 평균관세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2007년1월 시작된 한국과 EU의 FTA는 2011년 7월 발효 되었다. 한편 터키는 EU와의 관세동맹 관계로 인해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FTA 체결을 적극 검토해야 할 입장에 있다. 한·터키 FTA는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인교,2010)

지금까지 터키가 체결한 FTA 수산부분 협상결과를 보면, 터키는 관세율 할당방식(Tariff Rate Quota TRQ)을 선호하는 특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

1) 이란·터키·파키스탄 등 비아랍 이슬람교권 3국이 1983년 구성한 경제 협력기구. 이란-이라크전쟁 이후 이란이 자국의 경제부흥을 위해 활성화를 서둘러 왔으며 궁극적으로 서아시아의 EC화를 추구하고 있다. 1992년 2월 구소련의 아제르바이잔·투르크멘·우즈베크공화국을 새로 가입시킴으로써 면적 4백25만 평방km(EC의 2배), 인구 2억 5천 3백만 명(EC의 73%)을 포괄하는 거대한 『서아시아 경제권』의 탄생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EC를 모범으로 하는 경제동맹을 목표로 하고 있는 ECO는 우선 역내무역의 확대와 공동투자은행의 설립, 합작사업의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TRQ는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리는 데,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즉 할당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 관세율 할당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 수산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산물 등 1차 산품 개방 있어 TRQ의 감량 또는 증량 문제가 논란이 되곤 한다. 따라서 한-터키 수산물 FTA협상에 있어서도 터키는 전반적으로 관세율 할당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할당량과 할당량 내 관세율 협상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FTA 체결은 WTO/DDA 수산업 협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수산업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FTA는 협정 체결 대상국가에 따라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최성일, 최홍배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터키 FTA가 체결 될 경우 한국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중에서도 수산물의 관세 인하(철폐) 방식과 관세율 할당제 설정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관세 철폐 방식과 관세율 할당제의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FTA 체결이 수출입을 증가(감소) 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터키 FTA 체결 시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분균형모형에 입각하여 수산물 수입수요 함수를 추정 후 도출된 가격 탄력성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관세 철폐 시 수출입증대 효과와 관세율 할당제에 입각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그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를 분석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으로는 크게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 한국과 터키의 경제적 관계 분석, 실증 분석, 결론으로 되어 있다.

우선 선행 연구에서는 지역무역 협정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추세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 후에 FTA 체결 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FTA 영향 분석을 위한 모형과 수산물 수입수요 함수 추정 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검토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세율 할당제(Tariff Rate Quota)의 이론적 연구 중점으로 하여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론적 배경은 지역무역협정에서 대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FTA와 관세 동맹(CU)의 이론적 논리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형태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를 살펴보았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관세율 할당제도가 갖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2001-2010년 한국과 터키의 수산물 교역을 기초로 하여 수산물 수입수요 함수를 추정 한 후,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실증 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한-터키 FTA 체결 효과를 추정 하였다.

II. 선행연구

1. 지역무역협정의 이론적 연구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은 GATT와 WTO 체제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주의(Regionalism),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등으로 불리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이란 일정한 지역 내에 위치한 국가들 간에 생산물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내 시장의 경제적, 기술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국가 간 경제 협력의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손병해, 1997) 이러한 경제통합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경제 통합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관세동맹(Custom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 동맹(Economic Union) 등 여러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H Robert, 1973)

첫째, 특혜무역협정은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 통합의 유형으로 경제통합의 초기 단계에 적용되는 협정을 말한다. 이는 WTO 체제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일방적으로 양허할 경우 무역특혜가 허용되는 것을 말하며,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캐리비안, 태평양 국가들에 허용한 Lome 협정, 미국의 카리브연안특혜제도(United States' Caribbean Basin Initiative)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은 통합에 참여한 회원국 간에는 수입관세나 수량제한과 같은 모든 무역장벽들이 폐지되어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보장되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별로 자체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무역편향(trade deflection)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을 강화하고 있다. 1994년에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셋째, 관세동맹은 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회원국들 간에 상품은 자유롭게 거래되지만, 회원국들 간에 하나의 공동역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가 설정된다. 따라서 비회원국 상품이 수입될 때 자유무역협정에서 필요하였던 국경지역에서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대신 상품은 관세동맹 내의 어느 국가에서나 한 번 유통되면, 그 후로는 자유롭게 이동된다.

넷째, 공동시장의 기반은 관세동맹이다. 즉, 공동시장에서는 관세동맹이 가진 특성에다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까지도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추가적인 특성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전 단계인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가 이 단계에 속하는데 이는 더 나아가 1986년 7월 EC가 로마조약을 개정한 단일 유럽의정서를 발동시킴으로써, 1992년 말까지 상품·노동·서비스 등 총 282개의 역내 무역장벽을 폐지한다는 시장통합계획에 따라 1993년 1월 단일공동시장을 출범시킨 바 있다.

다섯째, 경제동맹은 회원국 간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화폐금융, 물가 및 세입, 거시정책과 노동 등 사회정책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장 진전된 형태의 협정이라 할 수 있다.(Jeffery A Frankel, 1997)

위의 분류는 경제통합 유형에 관한 연구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 동맹 및 완전한 경제통합으로 구분한 Balassa의 연구(Balassa 1969)와는 약간 다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맥락은 동일하다. 이상을 비교하여 경제통합의 개념을 살펴보면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무역상의 특혜조치가 이루어지는 영역까지도 경제통합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Balassa의 연구를 좀 더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부문에서 공동 의사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권이 떨어진다. 또한 Balassa의 연구와 같이 경제통합을 하나의 과정임과 동시에 상태로 보게 되면 이상의 유형들은 완전한 경제통합 즉, Balassa의 경제통합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정치적 통합단계로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면서 그 자체로서 하나의 경제 통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4) 주요 지역협력 방식별 협력수준

구분	통합 정도					예시
	역내자유 무역(제한)	역내자유 무역(포괄)	역외공동 무역정책	역내생산 요소이동	공통의 경제정책	
특혜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				NFTA EFTA
관세동맹	○	○	○			초기의 EC
공동시장	○	○	○	○		1993년 이후 EC
경제동맹	○	○	○	○	○	EU 지향형태

자료: 김재준·이한영(2004)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발효 건수는 총 286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1995년 이후 통보된 것으로서 WTO 출범 이후 오히려 RTA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WTO 회원국 중 거의 모든 국가가 하나 이상의 RTA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협상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2개 이상의 RTA에 가입되어 있다.(손수석,2009)

(표 5) 2010년 RTA 현황

RTA 형태	허용조항	GATS 5조	GATT 24조	합계
관세 동맹	6		14	20
경제 통합 협정		83		83
자유무역협정(FTA)	10		158	168
개도국 간 특혜협정	15			15
합계	31	83	172	286

자료: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이처럼 1995년 이후 WTO 체제하에서 다자주의적 무역자유화를 하려는 움직임과 이와는 상반되게 지역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간의 무역자유화 현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 무역체제는 WTO를 대표하는 다자주의와 RTA 라고 하는 지역주의의 이중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WTO 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가 확대·심화 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최초의 계기는 EU(유럽연합)의 확대와 심화이다. 유럽에서는 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EC가 주변국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을 성립시켜 EU(유럽연합)로 통합의 심화를 도모하였다.(손수석, 2009)

둘째, 도미노 효과에 의한 지역주의의 확산 배경을 찾을 수 있다. RTA 경쟁에서 다른 국가에 뒤처진다는 위기감이 각국으로 하여 RTA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하나의 RTA 체결이 또 다른 RTA 체결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Baldwin, 1993)

셋째,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교섭 난항에서 찾을 수 있다.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교섭이 복잡해지고 장기화 되고 있다.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 간에 복잡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보다 용이하게 해결 할 수 있는 RTA를 선호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RTA가 추진되고 있다. WTO의 경우 투자, 경제정책, 서비스무역, 환경문제, 노동기준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무역과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RTA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효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RTA의 경우 보다 심화된 통합 형태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무역과제들에 대한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정순태, 2007)

앞서 살펴본 지역주의의 주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지역주의(Super regionalism) 및 대륙 간(Cross-regional) RTA의 급증을 들 수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새로운 경향은 지역통합체가 다른 지역통합체와의 연대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통합체간의 연대 움직임은 지역을 넘어선 연대이기 때문에 슈퍼지역주의라고 불리어진다.(손수석 1999) Fiorentino, Verdeja와 Toqueboeufet(2007)은 WTO에는 통보되지 않았지만 2007년 현재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RTA의 경우 43%가 대륙 간 RTA이며 제안 단계에 있는 RTA의 경우 대륙 간 RTA 52%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손수석(1999)에 의하면 2009년 WTO에 통보된 대륙 간 RTA는 84건으로 전체 발효수의 35%를 차지하며, 이중 약 77.4%인 65건이 RTA 형태라고 분석하였다. 이런 대륙 간 RTA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RTA의 지정학적 특성이 약화됨으로써, 지역적 영역을 초월하여 특혜적 무역대상국을 찾으려는 각국의 전략적 시장접근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정순태 2007)

둘째, 정책 지향적 지역주의를 들 수 있다. 즉, 1960년대 지역주의는 대부분 시장 지향적이어서 대규모 시장 확보가 RTA의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무역 이외에 투자,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서 국별 정책 협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책 협조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는 인접국간에 우선적으로 무역장벽의 제거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 걸친 정책 협조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최근의 지역주의 하에서는 시장 지향적 RTA에서 정책 지향적 RTA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손병해 2002)

셋째, 지역무역협정들의 불균질성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지역주의의 자기증식과정은 필연적으로 발전 단계가 서로 다른 나라간의 RTA를 유도하므로 구성국의 경제적인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즉, 지역무역협정의 불균질성(unequality)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 전개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지역주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FTA(자유무역협정) 형태의 RTA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표 2)에서 통합 형태별 RTA를 살펴보면 2010년 FTA가 168(전체의 약 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경제통합협정이 83건, CU(관세동맹)이 20건, 개도 국간 특혜협정이 1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발효된 RTA가 205건이며 그 중 FTA가 126건 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최근 3년 여간 RTA가 81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FTA의 증가 건수가 42건으로 전체 증가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RTA는 FTA 형태가 가장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이론적 배경에서는 앞서 설명한 최근 지역주의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마지막 특징인 FTA가 가장 선호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실증 분석에 관한 연구

FTA 체결 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실증 연구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연구되어 왔다. 국내에서 최성일과 최홍배(2004)는 한·싱가포르 FTA가 체결 될 경우 한국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중에서 수산물 관세 인하(철폐)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산물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종속 변수를 수입 금액으로 독립변수로는 수입량, 수입가격, 국내가격수준, 소득수준을 투입하였으며, 소득수준은 국민소득자료(명목소득)를 GDP 디플레이트로 나누어 실질소득으로 변환 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싱가포르 FTA 체결 시 4억 4,200만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되었다.

남종오와 김수진(2010)은 공적분 분석을 이용하여 NAM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 감축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수입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시계열 자료가 안정적인지 또는 변수 간 자료의 차(difference)가 안정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분석을 시도 하였다.

김윤식(2006)은 국내 쇠고기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 쇠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재로 보는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FTA 체결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균형모형 하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가격은 11.5% 하락하고, 생산은 5.6%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액은 16.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국(2004)은 한·중·일 3국의 완전 관세철폐가 이루어진다는 시뮬레이션 하에 CGE모형 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여 FTA가 전 산업과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산출 하였다. CGE 모형을 통해 FTA 체

결 시 전 산업에 있어, 완전관세철폐가 이루어 질 경우 3국 모두 실질GDP, 민간소득, 수출, 수입 면에서 모두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GE 분석 후 산업연관 분석을 실시하여 IT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한 결과 생산유발(0.14%), 부가가치유발(10.58%), 수입유발(20.14%), 고용유발(6.14%)이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완근(2007)은 HS 품목별 수출입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한·인도 FTA가 IT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IT 분야의 관세가 모두 철폐될 경우 한국 IT 산업의 대인도 수출은 1억 6,235만 달러 수입은 57만 달러 각각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1억 6,178만 달러 증가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장영수와 김병호 외(2001)은 동북아지역의 수산물 교역구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수산물 자유무역지대가 설치 될 경우 무역확대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반입 예상 물동량을 수산물 수입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산물 자유무역지대 설치의 25%의 무역전환효과를 예상할 경우 총 효과는 289,765만 톤(1,262,111 달러)이 반입되며, 50% 기준 527,293만 톤(2,419,694 달러)이 반입 될 것으로 분석 하였다.

강보경(2009)는 지역경제통합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유력한 지역경제통합체인 ASEAN+3과 한·중·일의 출현에 따른 무역창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중력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최소자승법과 임의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하우스만(Hausman)테스트를 실행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추정한 결과 두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모형의 FTA 계수 값은 0.161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경우 두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모형의 출현에 따른 해당 회원국들은 최소 17.5%의 무역창출효과가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곽창근 외(2010)은 한-EU FTA 체결에 따른 초기 관세 절감이 농식품

부문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력 모형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중력 모형과는 달리 관세율 인하에 따른 영향을 추정 할 수 있도록 관세변수가 포함된 점과 물가수준의 형태로 표현된 교역 상대방 이외의 제3국들과의 교역저항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한-EU FTA 발효 초기 30% 정도 양국 관세율 감축은 한국의 대 EU 수출액을 약 4,980만 달러 증가, EU 대 한국 수출액은 12,480만 달러로 우리 식품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하였다.

Scott L. Baier&Jeffrey H. Bergstrand(2004)는 FTA 형태의 경제적 결정 요인의 체계적·실증적 분석과 양자 선택 모형(이산선택모형)을 사용한 국가 사이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생산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 된 세계 무역의 일반 균형 모델, 두 독점적 경쟁 상품 시장 그리고 다국가 간 다대륙 명백히 대륙 간 대륙 내의 수송비용을 기초로 하여 계량적으로 발전시켰다.

Tha Pye Nyo(2009)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GTAP 모델은 세계 경제의 데이터베이스를 수반하여 여러 지역을 계산 할 수 있는 일반적 균형 모델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경제 사이에 모든 상품에 한해 모든 수입 증가세와 비무역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고,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에게 세금을 유지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또한 선택한 상품 그룹 - 쌀, 과일과 채소, 수물 및 수산가공품, 유지 작물, 설탕- 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에 무역자유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Trefler(2004)는 미국과 캐나다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캐나다의 관세 삭감으로 인해 고용률 12%을 감소시켰으나 노동생산성은 15% 증가하였다. 수입 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 많은 거래가 만들어지면서 총 요소생산이 증대 될 것으로 분석 되었다.

Giap V. Nguen&Curtis M.J(2010)은 공적분 검정과 오류 수정 모형을

이용하여 카리브해 국가들의 수산물 수입 수요 총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수산물 수입 수요는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은 수산물 수입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 소득과 관광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산물 수입은 국내 수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세는 수입을 감소시키면서 국내 생산을 증대하는 효과를 미쳤다. 관세와 생산 장려 정책은 생산자 잉여를 증가시키나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고, 생산 장려 정책의 경우 반대로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나 생산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세율 할당제의 이론 및 실증적 연구

일반적인 FTA 체결 효과 분석 시, 관세가 완전히 철폐 된다는 가정하에서, 수산물 수입 수요를 분석하여 일반균형모델(CGE)과 부분균형모델 하에서 관세 철폐 효과를 추정한다. 이러한 일반 관세 철폐와 달리 저율관세율 할당제, 관세율 할당제, 시장 접근물량으로 불리는 TRQ(Tariff Rate Quota) 제도는 양허된 시장접근물량(Q)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t)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T)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

관세율 할당제와 관련된 연구로 국내에서는 김태운과 최세균(2010)이 관세율 할당제 증량과 관세 감축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한·미 FTA와 한·EU FTA의 양허안의 몇몇 품목(일반보리, 감귤, 감자, 팥, 낙농품)에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농산물이 이질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여 동등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에 실증적으로 관세율 할당량 증량과 관세 감축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수입 조건변화에 따른 수입량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수입량이 관세율 할당량

보다 적은 경우, 같은 경우,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그 결과 관세율 할당량 보다 수입량이 적은 감귤, 일반보리의 경우 관세 감축이나 관세율 할당의 의미가 없으며, 할당된 물량만큼 또는 관세율 할당 물량보다 필요에 의해 소폭으로 수입 증가가 되는 경우 관세 감축과 추가증량이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할당 물량을 초과 하는 경우 관세 감축은 수입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만 관세율 할당은 현재 수입물량까지 증량하여도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2003)과 임정빈&홍승지(2007)의 연구는 관세율 할당제의 개념 및 경제적 의미를 고찰 한 후 이병기는 관세율 할당제가 설정된 63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여 현행 국영무역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임정빈과 홍승지의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관세율 할당제 관리 방식과 이행 실태에 관해 분석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해외 연구로는 skully(2001)은 관세율 할당제의 경제적인 의미와 후생분석을 고찰 한 후, 비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총 7가지 관리 방법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경매를 통해 관세율 할당제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수요에 의한 라이선스 방법은 무역에 있어 위험(Risk)를 제공하며 직접적인 관세율 할당제 관리는 무역단체와 생산자 단체에게 무역에 대한 bias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Jean-Christophe et al.(2005)는 EU 관세 구조는 특히, 농업 분야에서 상당수의 혼합 관세율과 종량 관세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U는 관세율 할당제를 통하여 관리 하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EU와 Mercosur(남미공동시장)사이의 쇠고기 교역을 대상으로 하여 관세율 할당제 하에서 상이한 품질의 무역 물품(쇠고기)에 관한 소비자 수요 모형을 만들어 추정 한 후에, 각각의 가변적인 정책(쿼터내 물량, 쿼터 외 물량과 증가세 및 쿼터 수준)에서 변화되어진 비교 정태적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Kenneth Bailey, & Zhen Wu, (2005)는 버터와 버터 대체품의 월별 수입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발전 시켰다. 미국 버터와 버터의 제한된 정의를 대체 할 수 있는 높은 유지방 제품을 수입하며, 이들 제품은 스프레드 제품, 버터 대체품, 탈지분유, 전 처리된 음식을 포함한다. 미국에서 이들 제품의 수입 관세 할당제는 WTO에 의하여 설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버터와 버터 대체 수입에 포함된 모든 유제품을 계량화 하였다. 개념적 모델은 관세율 할당제 하에서 이들 제품의 수입을 설명하기 위하여 발전시키고, 계량경제적 모델은 쿼터 외 수입을 유도하는 경제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추정 하였다. 이러한 모형들은 미국과 세계 버터 가격 사이의 wedge²⁾가 쿼터 외 버터와 버터 대용품의 수입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2) Wedge : A wedge is the gap between the price paid by the buyer and price received by the seller in an exchange. Might be caused by a tax paid to a third party. (wedge는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과 판매자가 받은 금액 사이의 차이. 삼자에게 지불한 세금에 의해 발생)

Ⅲ. 이론적 배경

현재, 국제무역의 흐름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 2개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자주의는 세계 여러 나라가 상호적인 협의 아래 국제경제기구를 설립하여, 이 기구의 협정에 따라 무역자유화, 통화가치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흐름을 의미한다. 다자무역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이후로,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GATT 체제는 '기구'가 아닌 '협정'으로 구속력이 부족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등 선진국들이 반덤핑 제도 등 보호무역조치를 남용하자 GATT 체제는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1986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회원국들은 국제무역 분쟁을 확실히 해결하고 교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협정체제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149개의 회원국이 '최혜국 대우(MFN)'라는 원칙 아래 다자 간 협상을 통하여 공통의 무역 조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첫 번째 다자협상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를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표류 중에 있다.

반면, 지역주의는 국가 간에 지리적 접근성, 문화적 배경, 경제적 긴밀성 등을 근거로 하여 특정 국가들 간에 자유, 무차별의 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려 한다. 이러한 지역주의 하에서 체결 되는 협정을 지역무역협정이라고 하는데,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로 대표적인 것이 관세동맹(Custom Union)과 FTA(Free Trade Agreement)이다. 관세동맹은 경제적·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함으로써 동맹국 상호간에 교역의 자유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FTA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 간에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 등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협정 체결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 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체결된 FTA는 총 168건, 경제 통합 협정이 83건, 뒤를 이어 관세동맹 20건이 체결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RTA에서 FTA 형태가 가장 선호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각 국가들은 RTA 중에서도 관세동맹보다 FTA를 더 선호하는 것일까? 다음에서는 RTA 중에서 FTA가 선호되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1. FTA(자유무역협정)와 관세동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RTA가 FTA의 형태로 체결 되고 있다. 이제부터 어떠한 논리에 의해 최근 FTA가 가장 선호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RTA 중에서 관세동맹과 FTA의 경우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Robson(1988, 30-35)은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FTA와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를 정태적 부분균형 방법으로 분석 비교하여 FTA가 관세동맹보다 더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 1)의 D_A , D_B , S_A , S_B 는 특정 상품에 대한 A국과 B국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B국의 생산자는 A국의 생산자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하기 때문에 B국의 공급곡선 S_B 가 A국의 공급곡선 S_A 보다 탄력적이며, 양국은 유사한 수요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P_W 는 특정 상품의 세계가격을 나타낸다. 양국이 자유무역을 체결하기 전 B국은 A국보다 낮은 관세인 $P_W * P_B$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 부과 후 수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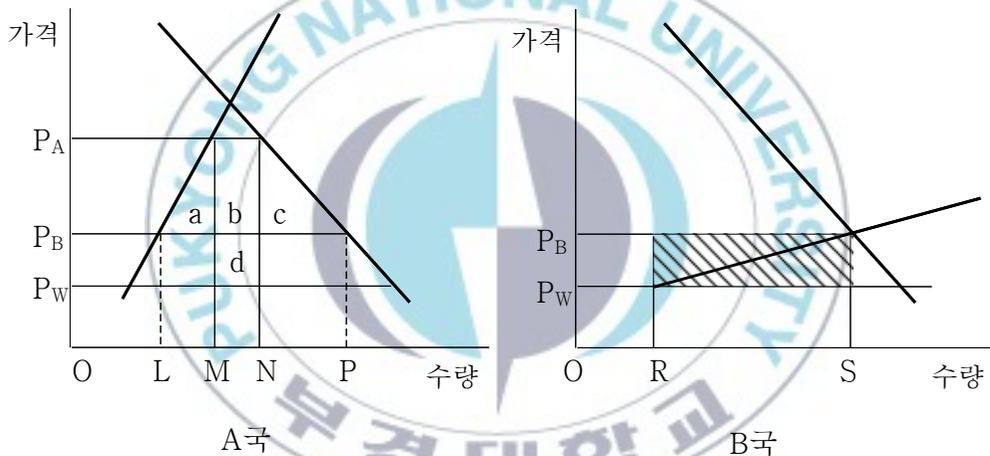
격이 P_B 이고, A국은 B국보다 높은 $P_W * P_A$ 만큼의 관세를 부과한 가격인 P_A 에서 수입가격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FTA가 체결되면, A와 B국의 국내 상품가격은 저관세국인 B의 관세포함가격인 P_b 수준이 된다고 가정한다. 자유무역을 시작되기 전 B국은 세계가격 P_W 에서 관세가 부여된 가격인 P_B 에서 OS만큼 생산하여 소비하므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A국은 가격 P_B 하에서 OM만큼 생산하고 ON에서 소비하여, 그 차이인 $N-M$ 만큼 세계가격인 P_W 로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게 된다.

A와 B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되면 (그림 1)의 P_B 가격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공급($OL+OS$)은 지역 내 수요($OP+OS$)를 초과한다. 이때 초과 수요(LP)은 P_B 가격 수준에서 B국이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보다 작을 것이다. 따라서 B국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 할 수 있는 기타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P_B 의 가격으로 LP(=RS)만큼 A국에 수출하고 나머지 OR만큼 국내에 공급 할 것이다. A국에 수출함으로써, 부족한 수요(RS)는 자유무역지역 외 국가로부터 세계가격인 P_W 로 수입하게 되어 간접무역균절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때 수입된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어 국내에 P_B 가격 수준으로 공급 될 것이다. FTA를 체결함으로써, 양국에서는 단일균형가격이 형성된다. 가격수준은 FTA 체결 전 양국의 가격 중 보다 낮은 가격인 P_B 와 동일해 진다.

FTA 체결로 인한 각국의 경제적 후생을 살펴보면, A국의 경우 삼각형 a만큼의 생산효과와 삼각형 c만큼의 소비효과로 구성되는 무역창출효과가 일어나게 되며, 사각형 d만큼의 무역전환비용이 발생한다. FTA 체결 전, $MN * P_W * P_A$ 만큼의 관세수입에서 FTA 체결 후의 b만큼의 무역전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정부의 수입에서 소비자의 후생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A국의 경우 생산효과 a와 소비효과 c를 합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비용 b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B국의 경우 FTA 체결 전 국내 공급 가격인 P_B 하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에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빗금 친 사각형만큼 A국으로 수출하고, 그 만큼을 P_W 가격으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다. 따라서 정부의 관세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A국과 B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FTA 체결 전 A국에 MN만큼 수출하였으나, FTA 체결 이후 LP만큼 B국으로 수출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FTA는 협정당사국은 물론 여타 다른 국가의 후생도 같이 증가 시킨다.

(그림 1) 자유 무역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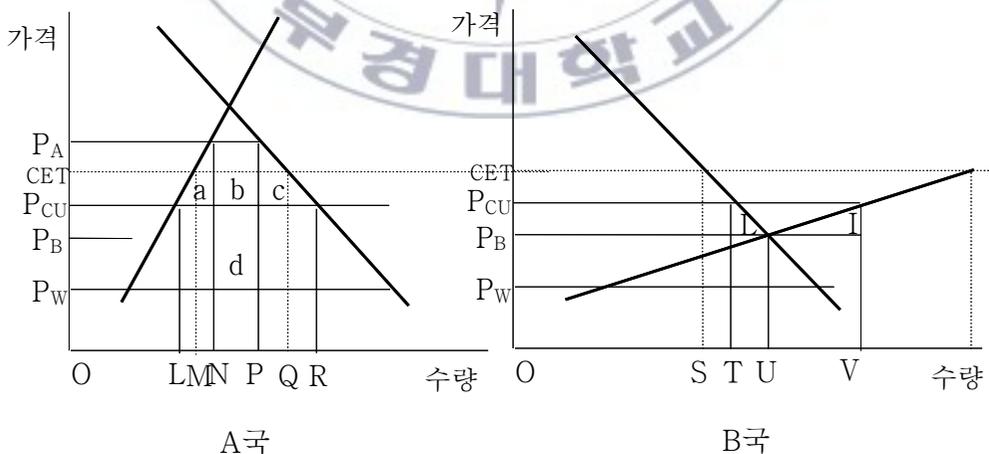


다음으로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그림 1)과 동일한 가정을 한다. A, B 양국의 관세평균적인 관세를 공동역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로 설정하는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앞서 분석한 FTA의 결과와 비교하기로 한다. (그림 2)에서 CET는 공동역외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A국의 관세포함 가격 P_A 와 B국의 관세포함 가격 P_B 의 사이에 위치한다. 이 경우 CET 가격수준 하에서 A, B 양국의 총 공급은 총 수요보다 크므로 CET 가격은 동맹 내 가격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관세동맹내의 균형가격은 A와 B국의 공급량(TV)과 수요량(LR)이 같아지는 P_{CU} 가

된다. 관세 동맹 시 양국의 경제적 후생을 분석해 보면, A국의 경우 FTA 체결 시 발생하는 생산효과(삼각형 a)와 소비효과(삼각형 b)를 합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빗금친 사각형 b)보다 크게 나타난다. 앞의 FTA 체결 시 (그림 1)과 비교해 볼 때 관세 동맹 시 나타나는 무역창출효과는 작고 무역전환효과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FTA 체결과 관세동맹의 체결 시 중요한 차이는 B국에서 볼 수 있는데, 관세동맹의 경우 B국의 소비자에게 I만큼의 소비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B국에서 A국과의 관세 동맹으로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소비자가 겪은 역효과라 할 수 있다. 또한 B국의 공급자는 순이익을 누리지만 J만큼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산효과(adverse production effect)도 생겨난다. 그러나 FTA의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생산효과와 소비효과의 발생 없이 정부 수입이 증가하게 되며 그 수입은 관세동맹 시 B국에 귀속되는 순이익보다 크다. 게다가 관세동맹의 경우 여타 국가와의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FTA의 경우 간접무역굴절현상³⁾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무역도 증가한다.

(그림 2) 관세 동맹의 효과



3) 간접무역굴절현상: 자유 무역 지역 내 저 관세국의 생산자가 자국 제품을 모두 고관세국의 동맹국에 수출하고 자국 내에 필요한 제품은 저 관세제도를 이용하여 역외에서 수입하는 현상.

이상의 분석에 의하면 순수한 정태적 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FTA가 관세 동맹 보다 유리한 형태의 RTA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FTA의 체결 시에만 발생하는 간접무역굴절현상이며, 이는 기존의 원산지규정으로도 방지 할 수 없다. 개별 국가에서는 FTA의 경우 공통역외관세를 설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세를 조율함으로써, 무역정책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후생 측면에서 FTA 체결국 간 관세 철폐로 인한 체결국간의 무역창출과 무역확대의 이익이 발생하며 간접무역굴절 효과로 인해 체결국외 국가로부터 수입은 계속 유지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다른 유형의 RAT보다 FTA가 선호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TA의 체결 방식을 보면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양허하지 않고, 이 외의 품목에 관해서는 단계적인 관세 차감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관세가 “0”이 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FTA 체결 시 TRQ제도(Tariff Rate Quota: 관세율할당제)을 전반적으로 요구하거나 일부 민감품목에 한해 채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관세 철폐제도와 TRQ제도는 국내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 방식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2. TRQ(Tariff Rate Quota)제도

TRQ 제도는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할당,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린다. 즉, 양허된 시장접근물량(Q)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t)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T)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 관세제도이다. TRQ는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으로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수입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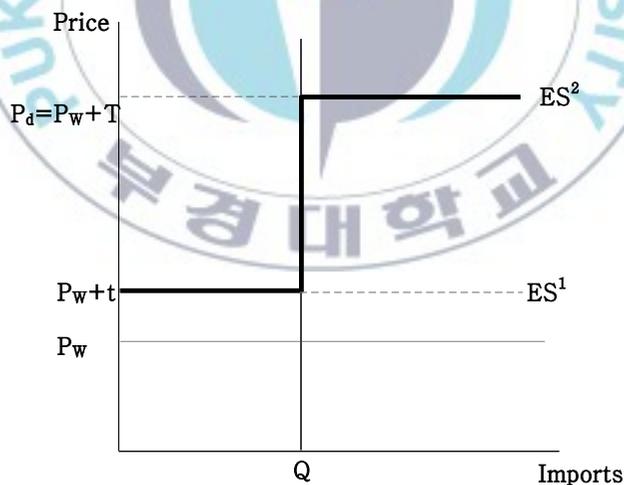
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 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특정상품에 대한 국내총생산량과 총수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 TRQ가 늘어나면 그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수산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FTA협상이나 수산물개방에 있어 TRQ 증량 문제가 논란이 된다.

사실 TRQ제도는 관세제도와 수입할당제도를 조합한 형태의 강력한 수입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TRQ제도는 FTA협상에 있어서 자국의 민감한 품목을 보호하거나 전체 수산업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목적 하에서 채택되곤 한다. 국내 특정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국내 가격이 세계 가격보다 크게 높기 때문에 수입수요 요인이 상존하지만, 당해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이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높은 민감성을 가질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할당량은 크게, 할당량 내 관세는 가능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반면 할당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현행 관세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할당량 내의 관세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할당량이 무제한이라면 할당량 내의 관세는 더욱 낮아지거나 0관세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TRQ 제도가 갖는 의미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앞서 설명한 이중관세 하에서 해당 품목의 국제 시장이 경쟁적이고 수입국이 소국이라는 가정하면 실효적 수출공급곡선을 2개의 수평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ES^1 은 세계시장가격에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t) 부과시의 초과공급곡선이며, ES^2 는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고율관세(T)하에 초과공급곡선이다. 따라서 실제 수출공급곡선은 시장 접근물량까지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ES^1 과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의 ES^2 로 나뉜다. 여기에서 P_w 는 세계 시장의 가격을 나타낸다. 관세할

당제는 수입국으로의 교역량유입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수량제한조치는 아니나,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양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가 수입 금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수입쿼터제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가 설정된 고율관세보다 높은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관세할당제의 효과가 발휘 될 것이다 ($P_d - P_w > T$). 이 경우에만 고율관세 부과 후에도 수입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때문에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조건은 주어진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이 이루어질 일종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실제 관세할당제의 무역에 대한 효과는 수입국의 국내 수입수요상황을 보여주는 초과수요곡선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이론적으로 수입수요곡선이 놓일 수 있는 상황은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3).

(그림 3) TRQ제도의 경제적 의미



(그림 4)에서 ED 곡선은 초과수요곡선은 국내수요에서 국내 공급을 뺀, 즉 필요한 수입 수요를 의미한다. 첫 번째, ED^1 곡선은 국내의 시장조건의 하에서 수입국의 수입수요곡선이 ES^1 아래 위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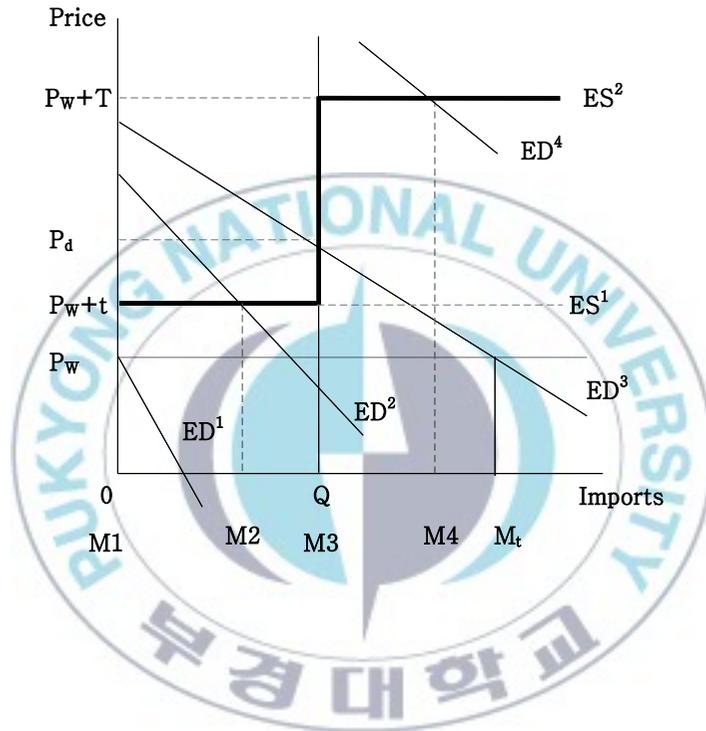
는 국내외 가격차가 미미한 품목이거나, 국내 수요 보다 많은 공급이 자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M1=0$).

두 번째, ED^2 곡선은 수입수요곡선이 국제가격에 시장접근세율이 부과되는 경우의 수출공급곡선(ES^2)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일정량의 수입이 발생되나 낮은 세율로 시장접근량 보다 적은 교역이 이루어진다($0 < M2 < Q$). 이 상황에서 국내 가격은 P_w+t 이며, 이때는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단일 관세와 경제적 효과 같기 때문에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하지 않아,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부터 수입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ED^3 곡선은 수입국의 수입수요곡선이 2개의 수출공급곡선 ES^1 과 ES^2 사이에 위치하며 정확하게 수입이 양허된 시장접근량에서 이루어진다($M3=Q$). 이러한 상황은 관세할당제를 단순한 관세제도와 구별되게 한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낮은 관세가 부과될 때의 수입량(M_t)에 비해 수입량이 적다. 따라서 실제 낮은 관세 부과 시에 발생하는 수입수요에 비해 적은 수입량만이 유입되는 상황은 시장접근물량 수입으로 인해 $P_d-(P_w+t)$ 만큼의 수입지대를 발생시킴으로써 해당품목의 수입 기회와 수입량의 국내 판매에 대한 분배 문제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수입국의 높은 수입수요로 인해 수입수요 곡선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ES^2 의 수출공급곡선상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넘는 수입에 높은 관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가 충분하여 실제 수입량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게 된다($M4 > Q$). 이때 해당 품목의 국내 가격은 세계가격에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고율관세를 더한 값, 즉 $P_d=(P_w+T)$ 가 되고,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발생하는 단위당 수입지대는 $T-t$ 이다. 이러한 수입 지대는 국내가격에서 세계가격에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인해 부과되는 저율 관세를 더한 값을 뺀 것이고, 총 수입지

대는 단위당 지대에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을 곱한 값이다. 이러한 수입 지대는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권이 누구에게 할당되느냐에 따라 수입업자, 수출업자 혹은 수출국, 생산자단체, 수입국 정부 등에 귀속된다.

(그림 4) 4가지 초과수입수요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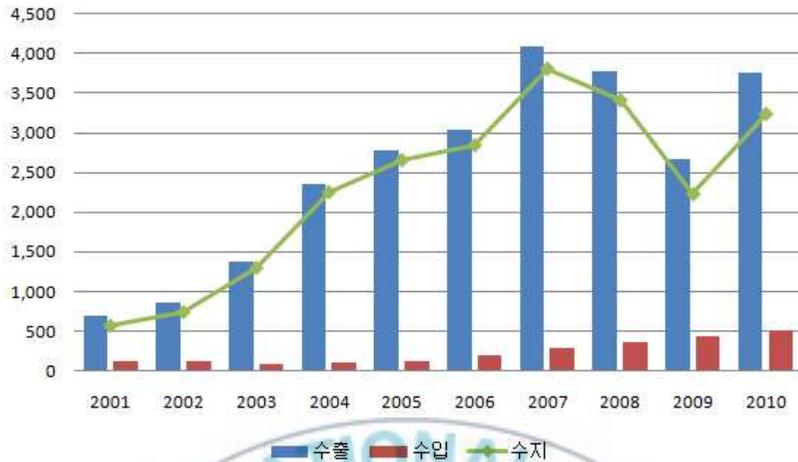


IV. 한-터키 양국의 경제 관계

1. 한국과 터키의 교역 규모 분석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2년 이전에는 1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3년 이후 교역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3.7억 달러(수출 40.9억 달러, 수입 2.8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0-10년 우리나라의 대 터키 수출실적은 연평균 25% 증가하였고, 터키 내수시장 증대로 자동차, 전자제품(휴대폰, PC)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정철,201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양국 간 교역규모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어 터키는 2007년 우리나라의 25대 수출국에서 2009년 32대 수출국으로 하락하였다가 2010년 기준 다시 25대 수출국으로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축소되어 동 기간 중 대 터키 수출/수입 비중이 2007년 14배에서 6배로 줄어들었으나 2010년 현재 13배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터키 수출규모는 우리나라 수출(4,663억 달러)의 0.8%(37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수입의 경우 2001년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체 수출 규모(4,252억 달러)의 0,12%(5.1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그림 5) 한국의 대터키 수출입 추이(2001-2010)



품목별 교역 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14.5%와 9.2%를 차지할 만큼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높으며, 다음으로 합성수지(8.7%), 철강판(7.8%) 순위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과 무선통신기기가 -52%, -21% 감소하였고, 나머지 품목들은 증가하였다. 특히, 건설광산기계와 철도차량 및 부품의 증가율이 각각 273%, 248%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상위 10개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9%에 이른다.

(표 6) 한국의 대터키 10대 수출품목

단위: 1000\$, %

품목	2009		20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자동차	287,877 (10.8)	-29.9	542,761 (14.5)	88.5
자동차부품	178,751 (6.7)	-57.1	344,457 (9.2)	92.7
합성수지	217,165 (8.2)	-29.8	327,047 (8.7)	50.6

철강판	214,508 (8.1)	-25.7	291,675 (7.8)	36.0
건설광산기계	40,272 (1.5)	-75.7	150,264 (4.0)	273.1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90,191 (10.9)	-23.0	137,741 (3.7)	-52.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0,457 (2.6)	-2.9	112,855 (3.0)	60.2
철도차량및부품	30,806 (1.2)	-83.2	107,242 (2.9)	248.1
플라스틱 제품	64,965 (2.4)	-3.2	101,373 (2.7)	56.0
무선통신기기	124,243 (4.7)	-36.3	97,701 (2.6)	-21.4

주: MTI 3단위 기준

() 안의 숫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교역 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 한국의 대터키 수입은 자동차 부품이 27.4%, 석유제품이 22.3%로 이 2가지 품목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의류(6.7%), 기타비금속광물(2.7%) 순위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기타비금속광물과 기호식품이 -5.6%, -31.89% 감소하였고, 나머지 품목들은 증가하였다. 특히, 석유제품과 기타유분의 증가율이 각각 205%, 145%로 큰 폭으로 상승 하였다. 석유 화합합성원료의 경우 2009년 수입실적이 존재 하지 않다가 2010년 11,217천 달러가 수입 되었다. 상위 10개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9%에 이른다.

(표 7) 한국의 대터키 10대 수입품목

단위: 1000\$, %

품목	2009		20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자동차부품	82,063 (18.9)	324.21	143,391 (27.8)	74.73
석유제품	37,714 (8.7)	-64.57	115,272 (22.3)	205.65
의류	24,364 (5.6)	-18.55	34,489 (6.7)	41.56
기타비금속광물	14,756 (3.4)	-3.84	13,929 (2.7)	-5.60
기호식품	18,684 (4.0)	32.47	12,725 (2.5)	-31.89
석유화학합성원료	0 (0.0)	-	11,217 (2.2)	-
곡실류	6,404 (1.5)	100.31	9,838 (1.9)	53.62
기초유분	3,954 (0.9)	152.17	9,721 (1.9)	145.85
식물성물질	5,926 (1.4)	12.75	9,689 (1.9)	63.50
면직물	4,677 (1.1)	-37.42	8,383 (1.6)	79.24

주: MTI 3단위 기준

() 안의 숫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국과 터키의 수산물 교역 규모 분석

한국과 터키의 수산물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을 기점으로 하여 터키와의 수산물 교역이 시작 되었다. 교역이 시작된 2001년부터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금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1633톤, 1,237만 9천 달러가 수입되었으며 18톤, 22만 8천 달러가 수출 되었다. 수입량의 경우 2001년과 비교하면 84%, 수입금액은 91%증가 하였으며 수출의 경우 수출량은 67%, 수입금액은 90%만큼 증가하였다.

(표 8) 한국과 터키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 (2001-2010)

단위: kg, 1000\$

	수입		수출		무역수지
	중량	금액	중량	금액	
2001	198,970 (0.0188)	813 (0.0493)	5,510 (0.0012)	16 (0.0012)	-797
2002	723,774 (0.0610)	2,504 (0.1328)	16,342 (0.0038)	63 (0.0054)	-2,441
2003	1,395,844 (0.1126)	4,398 (0.2242)	56,910 (0.1339)	45 (0.0039)	-4,353
2004	1,641,481 (0.1281)	6,063 (0.2681)	141,434 (0.0347)	597 (0.0466)	-5,466
2005	1,954,970 (0.1556)	7,766 (0.3258)	55,780 (0.0347)	256 (0.0214)	-7,510
2006	1,863,685 (0.1353)	8,162 (0.2947)	103,215 (0.0135)	832 (0.0764)	-7,330
2007	2,266,096 (0.1628)	10,778 (0.3526)	13,097 (0.0280)	213 (0.0173)	-10,565

2008	1,703,367 (0.0406)	13,510 (0.4361)	1,034,878 (0.1685)	579 (0.0398)	-12,931
2009	1,301,888 (0.0319)	9,319 (0.3218)	1,121,560 (0.1719)	517 (0.0342)	-8,802
2010	1,633,435 (0.0346)	12,379 (0.3579)	18,919 (0.0023)	228 (0.0126)	-12,151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2001~2010년 평균값 기준.

()안은 전체 수산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함.

품목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간 총 28개의 품목이 수입 되었으나, 수입 품목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수입되었다. 이 중에서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 참다랑어(냉동), 야광패각(소라), 패각(진주.청.야광패각 등 산호, 패각 이외 기타) 등은 5년 이상 수입되었으며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 품목의 경우 2001년-2010년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표 5)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의 경우 전 세계 비중을 보면 1%미만으로 매우 미미하나, 품목별 전 세계 비중을 살펴보면 몇몇 품목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2001-2010년 터키에서 수입되는 품목

단위: kg, 1000\$, %

	HS 코드	품목명	터 키		세계 비중	
			평균 중량	평균 금액	중량	금액
1	0307991160	소라(냉동)	1,660	20	1.20	1.84
2	1212209019	코토니밋스피노잠(냉동이외)	5,344	3	0.01	0.01
3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것이외)	904,384	5,157	4.69	11.57

4	0303450000	참다랑어(냉동)	33,620	671	6.54	6.26
5	0306143000	꽃게(냉동)	15,456	25	0.08	0.04
6	1212209099	기타해조류 (냉동 이외)	3,440	3	0.47	0.34
7	1605209090	새우와보리새우(기타)	11,596	50	0.19	0.13
8	0304295000	참다랑어(피레트/냉동)	22,645	1,101	8.19	8.58
9	1605409000	기타갑각류(통조림외)	6,400	19	12.95	7.72
10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123	2	0.02	0.02
11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119	0	0.01	0.01
12	0303490000	기타(냉동)	14	0	0.01	0.07
13	0304299000	기타어류의 냉동피레트	944	54	0.04	0.48
14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것)	10,950	72	1.70	4.40
15	1605909040	홍합(자숙)	1,080	6	0.02	0.05
16	03036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32	2	0.01	0.03
17	1605901092	소라(밀폐용기에 넣은것)	5,470	38	79.76	78.35
18	0508002090	패각(잔주철야광패각등 산호,패각 이외 기타)	147,254	89	32.73	28.10
19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240,961	197	53.55	62.46
20	2501009090	기타소금, 해수	49,400	14	0.07	0.28
21	0307992920	해삼(건조)	1	0	0.00	0.11
22	0307993920	해삼(염장, 염수장)	2	1	0.02	3.61
23	1604149000	다랑어,가다랑어,대서양머니토우 (기타조제)	143	2	0.15	0.16
24	0303460000	남방참다랑어(냉동)	13	1	0.03	0.11
25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4	0	0.00	0.00
26	1504101000	어류의간유,분획물(상어의간유)	86	2	0.06	0.39
27	1604141019	다랑어 (기타(밀폐용기에 넣은것))	1	0	0.00	0.00

수출 품목의 경우 10년 간 총 29개의 품목이 수출 되었으며, 수출 품목 역시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수출 되고 있다. 이중에서 고등어(냉동), 청어(냉동)의 경우 5년 이상 수출 되었으며 청어(냉동)은 한국에서 수출되는 청어(냉동) 의 4.3%(중량), 3.1%(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표 10) 2001-2010년 터키로 수출되는 품목

단위: kg, 1000\$, %

	품목 코드	품목명	평균		세계 비중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1302312000	분한천	3,885	57	1.628	1.050
2	1604204010	생선묵(게맛)	1,269	503	0.014	2.637
3	1604111000	연어(밀폐용기에 넣은것)	768	2	0.129	0.103
4	0303740000	고등어(냉동)	135,519	63	0.762	0.405
5	0303320000	가자미(냉동)	802	4	0.192	0.864
6	0303791000	명태(냉동)	4,647	22	0.048	0.234
7	0305593000	명태(북어(건조))	1,200	2	0.442	0.090
8	0307491020	오징어(냉동)	4,368	13	0.005	0.015
9	0307992190	기타연체동물(건조)	87	1	0.871	5.755
10	1604151000	고등어(밀폐용기에 넣은것)	50	0.200	0.008	0.015
11	1604161000	멸치(밀폐용기에 넣은것)	10	0.200	0.040	0.483
12	1604191010	꽂치(밀폐용기에 넣은것)	50	1	0.008	0.022
13	1604209000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어류	411	1	0.036	0.013
14	1604204090	생선묵(기타)	53	0.200	0.002	0.002
15	1605201000	새우와보리새우(밀폐용기에 넣은것)	9	0.040	0.088	0.061
16	1605901080	오징어(밀폐용기에 넣은것)	3	0.025	0.003	0.005
17	2106904090	조제한식용해조류(김 이외)	857	3	0.311	0.148
18	2106904010	김(조제한식용해조류)	561	3	0.010	0.008

19	0303798000	콩치(학콩치포함(냉동))	100	1	0.003	0.007
20	0303793000	갈치(냉동)	200	1	0.013	0.016
21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냉장)	331	1	0.116	0.185
22	1212201010	김(마른것)	33	1	0.002	0.000
23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9,204	73	0.025	0.104
24	0307591020	낙지(냉동)	706	4	0.835	1.855
25	1212202090	미역 (건조,염장,냉장,냉동한것 이외 기타)	94	1	0.067	0.173
26	0303510000	청어(냉동)	84,903	43	4.340	3.194
27	0303791000	어란(명태/염장,염수장)	4,734	22	0.049	0.235
28	0303799099	기타어류(냉동)	3	0.004	0.000	0.000
29	1604302000	캐비아대용물	1,375	15	0.055	0.039

3. 터키와 한국의 FTA 체결 현황 분석

1) 한국의 FTA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시장개방을 통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1999년 12월 14일 산티아고에서의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 제네바에서의 6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2002년 10월 25일 협상이 타결 되었다. 이후 양국의 국회 비준을 통해 2004년 4월 1일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오고 있다.

2004년 1월 싱가포르와의 1차 협상 개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여 한-싱가포르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 되었고 2006년 3월 2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최초 지역 블록을 대상으로 한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과의 협정은 2004년 공동연구 개시 합의를 시작으로 2005년 4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을 통해 2006년 9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 시장 중에 하나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과의 FTA 협정은 2004년 5차례에 걸친 전문가협상을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이후에도 2005년에서 2007년 총 17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순차적으로 2007년 6월 1일 상품 협정, 2009년 5월 1일 서비스, 2009년 9월 1일에는 투자 협정이 발효 되었다. 2010년 1월 1일 신흥 거대경제국가인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⁴⁾’을 발효하였다. 그 이외에도 경제권인 미국과 2007년 4월 2일, EU와 2009년 7월 13일에 협상을 타결 하였다. 그 이외에도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호주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 중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미-남아프리카관세동맹(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등과 협상을 검토 중에 있다.

4)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교류를 포괄하는 협정을 말한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유 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보다 더 광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5) 양자간 경제동반자 협정 (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표 11) 한국의 FTA 체결 현황

구분	국가	서명일	발효일	분야	비고
발효	칠레	03.02.15	04.04.01	상품	
	싱가포르	05.04.16	06.03.02		
	EFT	05.09.13	06.09.01	서비스	
	ASEAN	06.08.24	07.06.01	투자	
	인도	09.08.07	10.01.01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	미국	07.06.30			미발효
	EU	09.10.15			가서명
	페루	10.08.30			협상타결
협상 중 국가	캐나다				05.7.28 협상 시작
	멕시코				00.05 추진 방안 협의
	GCC				08.07.09 협상 시작
	호주				09.05.19 협상 시작
	뉴질랜드				09.06.80 협상 시작
	콜롬비아				10.03.01 협상 시작
검토 중 국가	중국				04.09 민간연구 개시추진 합의
	일본				98.11 민간연구 합의
	중국·일본				1999. 국정상회의 성과사업 추진
	러시아				양자간 경제동반자 협정(BEPA) ⁵⁾
	MERCOSUR				05.05 공동연구시작
	이스라엘				09.08 민간공동 연구 개최
	SACU				
베트남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 터키의 FTA 체결 현황

터키는 유럽연합(EU)를 비롯해 터키와 양자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동맹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 EU 및 WTO 규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 개발도상국, 기타 제 3국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⁶⁾ 현재 터키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이스라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튀니지, 모로코, 시리아, 이집트, 알바니아 등 13개 국가들 및 경제협력기구와 FTA를 체결하고 발효 중에 있으며,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⁷⁾, 몬테네그로, 칠레, 세르비아와 서명을 완료한 상태이다. 향후, 걸프협력위원회(GCC), 요르단, 페로제도(덴마크령), MERCOSUR, 인도, 멕시코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검토 중에 있다.

(표 12) 터키의 FTA 체결 현황

구분	국가	서명일	발효일	분야	비고
발효	EFTA	91.12.10	92.04.01	상품	
	EC	95.03.06	96.01.01	상품	관세동맹
	이스라엘	96.03.14	97.05.01	상품	
	마케도니아	99.09.07	00.09.01	상품	
	크로아티아	02.03.13	03.07.01	상품	
	보스니아	02.07.03	03.07.01	상품	
	튀니지	04.11.25	05.07.01	상품	
	팔레스타인	04.07.20	05.06.01	상품	
	모로코	04.04.07	06.01.01	상품	
	시리아	04.12.23	07.01.01	상품	

6) 정명생 외 (2009.12), 전략적 FTA 추진대비수산 부문 대응전략(Ⅱ): Mercosu 및 터키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292.

7)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회교권 경제 협력기구.

	이집트	05.12.27	07.03.01	상품	Enabling Clause
	알바니아	06.12.22	08.05.01	상품	
	그루지아	07.11.21	08.11.01	상품	
서명	ECO*	03.07.17	미발효	상품	Enabling Clause
	몬테네그로	08.11.26	미발효	-	국내비준 중
검토 중 국가	인도				
	멕시코				
	MERCOSUR				
	ASEAN				
	남아공				터키-SACU간 제1회 공동연구 개최
	알제리				

자료 :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4. 터키와 한국의 수입관세 비교

(표 9)의 한국과 터키의 주요 교역 품목 관세를 살펴보면, 터키는 우리나라 수산물과 경쟁이 거의 없는 품목(예: 야광패각, 참다랑어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0세율)을 적용지만, 대부분의 어종에 대하여 30(고등어 등)-80%(기타어류)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터키와의 교역 수산물에 대하여 8-2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터키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수산업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터키가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가 높은 국가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수산물 강력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전업 어업인들이 많고 따라서 터키의 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내의 사회정치적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3) 한국과 터키의 주요 교역 품목 관세

주요 수입 어종 (HS코드)		터키 수입 관세	한국 수입 관세	주요 수출 어종 (HS코드)		터키 수입 관세	한국 수입 관세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	54	20	0303740000	고등어	30	10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0	8	0303420000	황다랑어	0	10
0304295000	참다랑어	-	10	0303510000	청어(냉동)	30	10
0303450000	참다랑어	0	10	1302312000	분한천	0	8
2501009090	기타소금,해수	0	8	0303791000	명태	-	10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	54	20	0307491020	오징어	37.5	10
0508002090	패각	0	8	0307591020	낙지	37.5	20
1605209090	새우와 보리새우	54	20	2106904010	김	-	8
1605901092	소라	-	20	0307412000	오징어	-	10
0307991160	소라	-	20	0303793000	갈치	80	20
1605909040	홍합	-	20	1604209000	기타 어류	0	20
0304299000	기타어류	30	10	1212202090	미역	0	10
1212209099	기타 해조류	0	20	0303798000	꽁치(학꽁치포함)	37.5	20
0303610000	황새치	30	10	0305631000	멸치젓	37.5	20
0303490000	기타	0	10	0307591030	주꾸미	0	20
0303799099	기타어류	30	10	1212201010	김	-	20
0307992920	해삼	-	20	0305204010	어란(명태)	37.5	10
0307993920	해삼	-	20	0307411000	갑오징어	30	20
1604149000	다랑어	80	20	0303799099	기타어류	81.9	20
				1604302000	캐비아대용물	37.5	20
				0307993930	해파리	37.5	10

자료: Tariff Analysis online(WTO), 한국 관세청.

V. 실증 분석

1. 분석 모형

FTA의 경제적 과급효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한다. 우선 FTA 체결 이전에 FTA 체결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일반균형 모형에 입각한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모형과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부분균형모형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는 FTA 체결 이후 관세폐지를 비롯한 여러 요인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효과 중에서 관세폐지로 인한 효과를 추정해 내는 방법이 있다. 이는 FTA가 발효된 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계량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효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다.

1)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CGЕ)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CGЕ)는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국내 경제 부문들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이 상호의존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정책 변화나 특정사건의 효과를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이다. 경제주체들의 모든 행위를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현실의 데이터를 모형의 각 방정식에 들어있는 변수의 값과 연결하여 구성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 충격(변수의 변화)이 가해지면 이와 관련된 모든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균형 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게 되며, 이때의 주요 변수의 수치로 영향을 분석 한다. 경제변수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감안할 수

있어 경제전체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일반균형모형이다.

CGE 모형은 크게 정태모형과 자본축적모형으로 구분된다. 정태모형에서 FTA에 따른 거시경제효과는 관세감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나타난다. FTA 발효로 인해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면, 상대국에 대해 관세수준이 높았던 산업의 국내생산은 위축된다. 대체로 관세수준이 높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관세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즉 높은 관세수준을 유지했던 산업의 생산성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국내생산 위축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에 따른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은 비교열위산업에서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FTA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생산요소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FTA가 발효되면 전체적으로 국내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자본축적모형은 관세감축에 의해 증가된 국내생산 중 일부가 저축되고 이를 투자형태로 바꿔서 축적된 자본이 생산에 투입됨에 따라 다시 국내생산이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관세감축에 따른 국내생산의 증가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일어나므로 정태모형의 결과를 FTA의 단기적인 효과로 보는 반면, 증가한 국내생산이 자본축적으로 연결되어 생산에 투입되고 이로 인해 다시 생산이 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감안한 자본축적모형의 결과는 FTA의 중장기 효과로 간주한다.

2) 중력 모형

중력모형은 Tinbergen(1962)이 물리학의 중력모형을 응용하여 국제적인 교역 패턴을 설명하는데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국제 교역패턴에 대한 우수한 설명력과 모형이용의 용이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국가 수입, 인종, 종교와 같은 심리적인 거기를 통해 국가 간의 무역의 흐름을 추정하는 것이다. 중력 모형은 간단한 개념과 달리 국제 무역을 연구함에 있어 상당히 유효하다. 우선, 쌍무적 국가들 간의 무역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실증분석방법이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으나 무역이론의 기초를 다질 수 있고 무역과 거리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로서 새로운 흥미를 제공한다.(강보경, 2009) Tinbergen이 뉴턴의 중력이론을 국제 교역의 분석에 이용한 중력 모형은 다음과 같다.

$$T_{ij} = A \frac{Y_i \times Y_j}{D_{ij}}, \quad i \neq j$$

----- (1)

여기서 T_{ij} 는 교역 당사국간의 교역규모, Y_i 는 I국의 경제 규모, Y_j 는 j국의 경제 규모를 나타낸다. D_{ij} 는 I국과 j국의 물리적 거리이며 A는 비례상수 이다. 식(1)을 자연로그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계량분석을 위한 모형으로 재정리 된다.

$$\ln T_{ij} = \beta_0 + \beta_1 \ln Y_i + \beta_2 \ln Y_j + \beta_3 \ln D_{ij}, \quad i \neq j$$

----- (2)

일반적으로 교역 당사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Y_i 와 Y_j 는 GDP를 대리변수로 활용하며, 두 국가 간의 교역량은 양 국가간의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함을 가정한다. ($\beta_1, \beta_2 > 0$, $\beta_3 < 0$)

3) 부분균형모델

FTA 체결에 의한 기대 효과는 거시적으로 경제성장, 소비, 투자, 무역수지,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치며, 미시적으로는 산업간 연관관계에 입각하여 산업별 생산, 수출입, 가격 등에 변화를 가져온다.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수산 분야는 이들 요인을 고려 할 수 있을 만한 통계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력모형, 일반균형연산모형(CGE) 등을 활용하여 FTA 체결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수산 분야에 있어 중력모형이나 일반균형연산모형은 모형 내에 수산 분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 시장의 부분 균형을 가정하고 관세폐지에 의한 수출입 증대 효과를 단일방정식 부분균형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부분균형모델은 품목군이 아닌 세부 품목별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국내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동질의 상품(homogeneous good)로 보고 국내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수입 수요 함수로 정의한다. 그리고 수입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입수요의 변화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다.(김윤식, 2006)

2.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 대상 선정

수입가격에 대한 수입물량 변화 분석을 위하여 각 품목에 대한 수입수요 함수를 추정하고 각 품목별 수입가격에 대한 탄력성을 산출하였다. 수입가격 탄력성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입량 변화정도를 나타내게 된다. 수입수요함수에 추정에 관해서 Stern, Jonathan&Bruces(1976)은 종속변수로 수입량을 독립변수로 국내의 단위당 수입가격, 국내가격수준, 소득수준을 변수로, Giap V&Curis M는 독립변수로 소득수준과 환율, 관광 효과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남종오&김수진(2010)은 수입수산물 수입단가 ($\frac{\text{환율/수출입단가}}{\text{국내대체재가격}}$), 실질 소득(산업생산자지수)을, 정명생(2009)은 국내의 단위당 수입가격, 국민소득(산업생산자지수), 전기 수입량, 더미변수(시차 또는 계절 변수 적용)을 독립 변수로 사용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선행연구에 따른 수입수요함수의 추정 결과 독립변수로 수입단가, 국민소득 (산업생산자지수), 전기 수입량을 사용 하였다. 수입단가의 경우 단위당 수입 가격 대신 남종오&김수진(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frac{\text{환율/수출입단가}}{\text{국내대체재가격}}$ 을 수입 단가로 사용하였으며, 전기 수입량의 경우 터키에서 수입되는 수입량 대신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량을 변수로 사용 하였다. 이는 터키의 수출입이 연속적이지 않으며, 터키의 전기 수입량보다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양에 따라 수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입함수 추정식>

$$\ln(Q_{jt}) = b_{0j} + b_{1j} \ln(P_{jt}) + b_{2j} \ln(Y_t) + b_{3j} \ln(Q_{jt-1}) + \epsilon_{jt}$$

Q_{jt} = j 품목의 t 기 수입량, P_{jt} = j 품목의 t 기 수입단가
 Y_t = t 기 1인당 국민소득, Q_{jt-1} = j 품목의 $t-1$ 기 수입량
 b_{ij} = 파라메타 추정치 ($i = 0, \dots, 4$; $j =$ 품목)
 ϵ_{jt} = j 품목 식의 t 기 오차항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되는 품목과 터키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론적으로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품목의 대세계 수출입함수로 대체하였다.

관세율 할당제는 쿼터 내에서 해당품목의 수입가격을 하락시키며, 이에 따라 수입물량도 증대하지만 그 물량이 한정 되어 있다. 관세의 경우 쿼터 내 관세(t)는 현행 관세보다 낮게, 쿼터 외 관세(T)의 경우 고율관세를 부과하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의 관세를 설정할 경우 수입할당제와 효과가 같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 체결된 FTA에서 수산부문의 TRQ 품목을 살펴보면 TRQ 쿼터 내에서는 무관세를 설정하고 있으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한해서는 현행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쿼터 설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TRQ 쿼터 설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쿼터 내 관세는 무관세로, 쿼터를 초과 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설정하고 쿼터는 최근 3년 수입 평균과 수입평균의 $\pm 50\%$ 를 가감한 물량, 총 3가지의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수출(수입)물량과 수출(수입)가격은 위에서 수입수요함수를 통해 추정된 가격 탄성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수출(수입)에 대한 가격 탄성치는 터키의 자원변동, 국내 수요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된 가격 탄성치에 품목별 가격 탄성치의 표준편차를 가감하여 탄성치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분석대상 품목은 터키에서 한국으로 수출입 되는 품목 중에서도 비교적 수입 실적이 많은 품목에 한정하였다. 2001~2010년 10년 평균 수입실적(금액 기준) 최소 1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외 품목

의 수출입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수출입된 것들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은 (표 11)의 수출증대효과 2개 품목과 수입증대효과 대상 품목 총 8개 품목이다. 이들 수산물이 국내로 수출입 되는 터키산 수산물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99%(2007~2010년 10년 평균기준)에 이르며, 전체 수출입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금액 기준 4.4%(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 것)~62.4%(야광패각 소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청어(냉동)의 경우 전체 수출금액 기준 3.1%에 이른다.



(표 14) 수출입 증대효과 분석 대상 품목

단위: kg, 1000\$, %

품목 코드	품목명	터키 평균		세계수입비중	
		중량	금액	중량	금액
0304295000	참다랑어(피레트/냉동) 품목	22,645	1,101	8.1	8.5
0303450000	참다랑어(냉동)	33,620	671	6.5	6.2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240,961	197	53.5	62.4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904,384	5,157	4.6	11.5
1605901092	소라(밀폐용기에 넣은 것)	5,470	38	79.7	78.3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	10,950	72	1.7	4.4
0508002090	패각(진주, 청, 야광패각등, 산호, 패각 이외 기타)	449,972	316	32.7	28.1
0307991160	소라(냉동)	1,660	20	11.9	18.4

품목 코드	품목명	터키 평균		세계수입비중	
		중량	금액	중량	금액
0303510000	청어(냉동)	84,903	43	4.34	3.19
0303740000	고등어(냉동)	135,519	63	0.76	0.40

3. 수출입 수요 함수 추정 결과

사용한 자료는 한국무역협회의 품목별 수출입 실적을 이용하였으며, 소득은 한국의 산업 생산지수를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1년 2010년까지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다.⁸⁾ 이상의 모델과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패키지인 spss 18를 사용하여 품목별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모든 수출입 수요 함수 전체 모형의 유의 확률은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탄력성을 분석함에 있어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elastic)이라 하고, 1보다 작은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inelastic)이라고 한다. (표 12)의 수출수요함수 추정 결과를 보면 청어(냉동)의 가격 탄성치는 -2.895, 고등어(냉동)은 -1.394로 2가지 품목 모두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표 15) 수출수요함수 추정결과

청어(냉동)					고등어(냉동)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b ₀	30.282	5.112	0.000		b ₀	-8.645	-3.780	0.000	
b ₁	-2.895	-4.595	0.000	7.446	b ₁	-1.394	-7.411	0.000	1.321
b ₂	0.162	0.177	0.861	1.253	b ₂	0.054	.0120	0.904	1.588
b ₃	0.127	1.252	0.135	1.174	b ₃	0.436	6.613	0.000	1.227
b ₄	-3.196	-4.630	0.000	7.312	b ₄	-0.987	2.148	0.034	1.363

p-value: 0.000 R²: 0.473 D.W: 1.845 p-value: 0.000 R²: 0.517 D.W: 1.811

참다랑어(피레트/냉동) 과 참다랑어(냉동)의 경우 터키에서 수입되는 HS 코드 6단위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추정 결과가 나타났다. 폐각과 소라(냉동)의 가격 탄성치는 각각 -0.473과 -0.289로 비탄력

8) 자유도의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계절 또는 시기별로 수출입 실적이 편의를 띄는 경우 분기자료를 이용하였음.

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나머지 품목의 경우 가격 탄성치가 -1.042(참다랑어 품목)에서 -1.536(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로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수입수요함수 추정 결과

참다랑어(피레트/냉동) & 참다랑어(냉동)					야광패각(소라)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b ₀	2.007	0.323	0.750		b ₀	-8.645	-3.780	0.000	
b ₁	-1.042	-2.623	0.15	1.256	b ₁	-1.394	-7.411	0.000	1.321
b ₂	1.261	0.777	0.445	1.391	b ₂	0.054	.0120	0.904	1.588
b ₃	0.255	0.531	0.601	1.525	b ₃	0.436	6.613	0.000	1.227
b ₄	-0.023	-0.086	0.933	1.059	b ₄	0.987	2.148	0.034	1.363
p-value: 0.000 R ² : 0.324 D.W: 2.382					p-value: 0.000 R ² : 0.318 D.W: 1.21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b ₀	1.369	0.363	0.719		b ₀	-1.264	-0.618	0.538	
b ₁	-1.144	-3.084	0.004	2.265	b ₁	-1.563	-8.457	0.000	1.321
b ₂	2.449	2.410	0.21	3.323	b ₂	-0.512	1.138	0.257	1.588
b ₃	1.429	3.906	0.000	2.906	b ₃	0.396	6.255	0.000	1.227
b ₄	0.179	0.217	0.830	1.328	b ₄	-0.257	-0.636	0.526	1.363
p-value: 0.000 R ² : 0.605 D.W: 1.199					p-value: 0.000 R ² : 0.558 D.W: 1.863				

소라(냉동)					패각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b ₀	2.510	4.027	0.000		b ₀	-3.001	-2.032		

b ₁	-0.473	-3.955	0.000	1.443	b ₁	-0.289	-2.124	0.360	1.037
b ₂	0.564	5.180	0.000	1.764	b ₂	1.328	3.871	0.000	1.368
b ₃	0.560	8.245	0.000	1.161	b ₃	0.543	7.198	0.000	1.037
b ₄	-0.148	-1.522	0.123	1.155	b ₄	0.030	0.395	0.694	1.057

p-value: 0.000 R2: 0.544 D.W:1.769 p-value: 0.000 R2: 0.839 D.W: 2.016

4. 관세 감축 영향 분석 결과

터키의 관세인하(철폐)는 해당품목의 터키 내 수입가격을 하락시키며, 이에 따라 수입물량도 증대한다. 이때 증대하는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은 위에서 수출함수를 통해 추정된 가격 탄성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수출에 대한 가격 탄성치는 터키의 자원변동, 국내 수요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된 가격 탄성치에 품목별 가격 탄성치의 표준편차를 가감하여 탄성치의 범위를 설정하여 수출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14)의 분석 결과 청어(냉동)의 경우 수출 증대액은 32~43천 달러(74~99%)증가하고 고등어(냉동)은 17~35천 달러(27~56%)증가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수출 증대 금액은 49~78천 달러이다.

(표 17)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단위: US\$1000, MT, %

품목 코드	품목명	수출 증대액	수출 증대율	수출 증대량	수출 증대율
-------	-----	-----------	-----------	-----------	-----------

			(금액)		(중량)
0303510000	청어(냉동)	32~43	74~99	90~120	106~142
0303740000	고등어(냉동)	17~35	27~56	53~109	39~80
합계		49~78		143~229	

관세인하(철폐)는 해당품목의 수입가격을 하락시키며, 이에 따라 수입물량도 증대한다. 이때 수입물량과 수입가격은 위에서 수입수요함수를 통해 추정된 가격 탄성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수입에 대한 가격 탄성치는 터키의 자원변동, 국내 수요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된 가격 탄성치에 품목별 가격 탄성치의 표준편차를 가감하여 탄성치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표 15)의 분석결과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이외: 1605909090)이 1,073~1,837(20~35%)천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참다랑어(피레트/냉동: 0304295000)이 58~170(5.3~15%) 천 달러, 참다랑어(냉동: 0303450000) 35~104(4.3~13.2) 천 달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총 수입 증대 금액은 1,214~2,179 천 달러이다.

(표 18)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 증대

단위: US\$1000, MT, %

품목 코드	품목명	수입 증대액	수입 증대율 (금액)	수입 증대량	수입 증대율 (중량)
0304295000	참다랑어(피레트/냉동)	58~170	5.3~15	1.3~3.9	5~17
0303450000	참다랑어(냉동)	35~104	4.3~13.2	1.9~5.8	3.5~15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27~43	13~22	36~57	14~23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이외)	1,073~1,837	20~35	235~402	26~44

1605901092	소라(밀폐용기에 넣은 것)	2.3~4.8	6~12	0.42~0.88	7~16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	15~29	21~41	2.9~5.6	26~51
0307991160	소라(냉동)	1.2~2.5	6~12	0.13~0.27	7~16
0508002090	패각(진주,청,아광패각 등 이외 기타)	0.8~4.9	0.9~5	1.4~8	0.9~6.0
합계		1,214~2,179		279~485	

4. 관세율 할당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일반 관세 철폐(수출증대액: 49~78, 수출증대량: 143~229)의 경우와 관세율 할당제(TRQ)비교 하였을 때, 시나리오 3-1)의 수입 물량 +50%, 관세 감축 -50%인 경우 (수출증대액: 55~88 수출증대량: 146~233) 관세 철폐 방식 보다 수출 증대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시나리오3-2)의 수입 물량 -50%, 관세 감축 -25%의 경우 가장 작은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수출증대액: 12~20 수출증대량: 30~47) 시나리오 2-1)의 수출 물량 +25%와 관세 감축 -50%의 경우 (수출증대액: 46~73 수출증대량: 121~194) 일반 관세 철폐와 근접한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 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19) TRQ로 인한 수출 증대

단위: 1000US\$, %

시나리오	3년 수출 평균 물량	
	1-1)	관세 -25%

품목명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청어(냉동)	24~32	56~74	61~82	72~96	16~21	37~50	37~50	44~58
고등어(냉동)	13~27	21~42	35~73	26~54	9~18	14~28	21~44	16~33
합계	37~59		97~155		25~39		59~94	

시나리오	수출물량 + 25%							
2-1)	관세 -25%				관세 -50%			
품목명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청어(냉동)	20~27	47~62	46~62	55~73	30~40	70~93	76~102	90~120
고등어(냉동)	11~22	17~35	27~6	20~41	16~33	26~53	45~92	33~68
합계	31~99		74~118		46~73		121~194	

시나리오	수출물량 -25%							
2-2)	관세 -25%				관세 -50%			
품목명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청어(냉동)	12~6	28~37	28~37	33~44	18~24	42~56	46~61	54~72
고등어(냉동)	6~13	10~21	16~34	12~25	10~20	15~2	27~55	20~41
합계	18~29		44~71		28~44		73~16	

시나리오	수출물량 +50%							
	관세 -25%				관세 -50%			
3-1)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청어(냉동)	24~32	56~74	56~74	66~88	36~48	84~112	92~122	108~144
고등어(냉동)	13~27	21~42	33~67	24~50	19~40	31~63	54~111	40~82
합계	37~59		89~142		55~88		146~233	
시나리오	수출물량 -50%							
	관세 -25%				관세 -50%			
3-2)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청어(냉동)	8~11	19~25	19~25	22~29	12~16	28~37	31~41	36~48
고등어(냉동)	4~9	7~14	11~22	8~17	6~13	10~21	18~37	13~27
합계	12~20		30~47		18~29		49~78	

일반 관세 철폐(수입증대액: 1,214~2,179, 수입증대량: 279~485)의 경우와 관세를 할당제(TRQ)비교 하였을 때, 시나리오 3-1)의 수입 물량 +50%, 관세 감축 -50%인 경우 (수입증대액: 1,366~2,473 수입증대량: 298~518) 관세 철폐 방식 보다 수입 증대가 크게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3-2)의 수입 물량 -50%, 관세 감축 -25%의 경우 가장 작은 수입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수입증대액: 304~549, 수입증대량: 63~109) 시나리오 2-1)의 수입 물량 +25%와 관세 감축 -50%의 경우 (수입증대액: 1,138~2,060 수입증대량: 247~431) 일반 관세 철폐와 근접한 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 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20) TRQ로 인한 수입 증대

단위: 1000US\$, %

시나리오 1-1)	3년 수입평균 물량							
	관세 -25%				관세 -50%			
품목명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참다랑어 (피레트/냉동)	29~85	2~7	0.6~1.8	2~8	43~128	3~11	0.9~2	4~12
참다랑어(냉동)	17~52	2~7	0.9~2	2~9	26~78	3~11	1~4	4~12
야광패각(소라)	13~21	6~11	17~27	7~11	20~31	10~16	26~43	10~17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것외)	536 ~918	10~17	104 ~179	11~19	804 ~1,378	15~26	166 ~284	18~31
소라 (밀폐용기에넣은것)	1~2	3~6	0.1~0.3	3~7	1~3	4~9	0.2~0.6	5~11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것)	7~14	10~20	1.3~2. 5	11~22	11~22	16~30	2~3	18~36
소라(냉동)	0.6 ~1.2	3~6	0.06 ~0.12	3~7	0.9~1.8	4~9	0.09 ~0.19	5~11
패각	0.4 ~2.4	0.4~2	0.7~4	0.4~2	0.61 ~3.70	0.6~4.1	1~6	0.7~4
합계	607 ~1,099		153 ~254		911 ~1,648		198 ~345	

시나리오 2-1)	수입물량 + 25%							
	관세 -25%				관세 -50%			
품목명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참다랑어 (피레트/냉동)	36 ~106	3~9	0.7~2	3~10	54~160	4~14	1~3	5~15
참다랑어(냉동)	22~65	3~9	1~3	3~10	33~97	4~14	1~5	5~15
야광패각(소라)	27~16	8~13	21~34	8~14	25~40	12~20	33~52	13~21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것외)	1,148 ~670	13~22	130 ~223	14~24	1,106 ~1,722	19~33	207 ~355	22~39

소리 (밀폐용기에넣은것)	1~3	3~8	0.2~0.4	4~8	2~4	5~12	0.3~4	6~14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것)	9~18	13~25	1~3	14~28	14~27	20~38	2~4	23~45
소리(냉동)	0.7~1. 6	3~8	0.07 ~0.15	4~8	1~2	5~12	0.1~0. 2	6~14
패각	0.5~3	0.5~3	0.8~5	0.6~3	0.4~4	0.8~5	1~8	0.9~5
합계	759 ~1,374		157 ~273		1,138 ~2,060		247 ~431	

시나리오 2-2)	수입물량 -25%							
	증대액	관세 -25%			관세 -50%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참다랑어 (피레트/냉동)	21~64	1~5	0.4~1	2~6	32~96	2~8	0.7~2	3~9
참다랑어(냉동)	13~39	1~5	0.7~2	2~6	20~58	2~8	1~3	3~9
야랑패각(소리)	10~16	5~8	12~20	5~8	15~24	7~12	19~31	8~13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것외)	402 ~689	7~13	78 ~134	8~14	603 ~1,033	11~20	124 ~213	13~23
소리 (밀폐용기에넣은것)	0.8~1	2~4	0.1~0.2	2~5	1~2	3~7	0.2~0.4	4~8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것)	5~11	8~15	0.9~1	8~17	8~16	12~23	1.5~2	14~27
소리(냉동)	0.4 ~0.9	2~4	0.04 ~0.09	2~5	0.6~1	3~7	0.07 ~0.1	4~8
패각	0.3~1	0.3~2	0.5~3	0.3~2	0.4~2	0.5~3	0.8~4	0.5~3
합계	455 ~824		94 ~164		683 ~1,232		149 ~254	

시나리오 3-1)	수입물량 +50%							
	관세 -25%				관세 -50%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참다랑어 (피레트/냉동)	43 ~128	3~11	0.9~2	4~12	65 ~192	5~17	1~4	6~18
참다랑어(냉동)	26~78	3~11	1~4	4~12	40 ~117	5~17	2~6	6~18
야광패각(소라)	20~32	10~16	25~1	10~17	30~48	15~24	39~63	16~26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것외)	804 ~1,378	15~26	156 ~268	17~29	1,207 ~2,067	23~40	249 ~426	27~47
소라 (밀폐용기에넣은것)	1~3	4~9	0.2 ~0.5	5~10	2~5	6~14	0.4 ~0.9	8~16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것)	11~22	16~30	1.9~3	17~34	17~33	24~46	3~5	28~54
소라(냉동)	0.9~1	4~9	0.08 ~0.1	5~10	1~2	6~14	0.1 ~0.2	8~16
패각	0.6~3	1~6	1~6	0.7~4	0.9~5	1~6	1~9	1~6
합계	911 ~1,648		188 ~328		1,366 ~2,473		298 ~518	

시나리오 3-2)	수입물량 -50%							
	관세 -25%				관세 -50%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증대액	증대율 (금액)	증대량	증대율 (중량)
참다랑어 (피레트/냉동)	14~42	1~3	0.3~0.9	1~4	21~64	1~5	0.4~1	2~6
참다랑어(냉동)	8~26	1~3	0.4~1	1~4	13~39	1~5	0.7~2	2~6
야광패각(소라)	6~10	3~5	8~13	3~5	10~16	5~8	13~21	5~8
기타연체동물 (밀폐용기에넣은것외)	268 ~459	5~8	52~89	5~9	402 ~689	7~13	83 ~142	9~15
소라 (밀폐용기에넣은것)	0.5~1	1~3	0.09 ~0.1	1~3	0.8~1	2~4	0.1 ~0.3	2~5

기타연체동물 (말뚝용기에넣은것)	3~7	5~10	0.6 ~1.2	5~11	5~11	8~15	1.04 ~1.9	9~18
소라(냉동)	0.3 ~0.6	1~3	0.03 ~0.06	1~3	0.4 ~0.9	2~4	0.04 ~0.09	2~5
패각	0.2 ~1.2	0.2~1	0.3~2	0.2~1	0.3~1	0.3~2	0.5~3	0.3~2
합계	304 ~549		63 ~109		455 ~824		99 ~173	

관세율 할당제의 쿼터 설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쿼터 내 관세는 무관세로, 쿼터를 초과 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설정하고 쿼터는 최근 3년 수입 평균과 수입평균의 $\pm 50\%$ 를 가감한 물량, 총 3가지의 경우를 토대로 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관세율 할당제(TRQ)의 경우 물량과 관세 감축을 어떻게 설정 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출(수입)을 증대 시키거나 감축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통해 향후 FTA 체결 시 일반 관세 철폐 방식에 비해 민감 품목에 대한 탄력적인 보호와 더불어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V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터키 FTA가 체결 될 경우 한국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중에서도 수산물의 관세 인하(철폐) 방식과 관세율 할당제 설정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관세 철폐 방식과 관세율 할당제의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FTA 체결이 수출입 증대를 증가(감소) 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터키와의 수산물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0.3% 정도로 매우 낮고 2000년 이후 터키로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수산물이 상대적으로 수출보다는 수입의 증가세가 더 커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키와의 FTA 체결은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하락과 터키산 수산물의 국내산 수산물의 대체로 인하여 해당 어업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단점과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공급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수입가격에 대한 수입물량 변화 분석을 위하여 각 품목에 대한 수입수요 함수를 추정하고 각 품목별 수입가격에 대한 탄력성을 산출하였다. 수입가격 탄력성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입량 변화정도를 나타내게 되며, 수입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수입량, 독립변수로 수입단가, 국민소득(산업생산자지수), 전기 수입량, 더미변수(시차 또는 계절 변수 적용)를 사용하였다. 수출증가효과는 수입수요함수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되는 품목과 터키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론적으로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품목의 대세계 수출입함수로 대체하였다. 또한 품목에 따라

수출에 계절성을 띠거나, 전기의 수출(수입)이 현재 수출(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모형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나 계절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관세율 할당제 쿼터 설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쿼터 내 관세는 무관세로, 쿼터를 초과 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설정하고 쿼터는 최근 3년 수입 평균(2007~2009)과 수입평균의 $\pm 50\%$ 를 가감한 물량, 총 3가지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이때 수출(수입)물량과 수출(수입)가격은 위에서 수입수요함수를 통해 추정된 가격 탄성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수출(수입)에 대한 가격 탄성치는 터키의 자원변동, 국내 수요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된 가격 탄성치에 품목별 가격 탄성치의 표준편차를 가감하여 탄성치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터키 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수입증대 효과는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넣은것이외: 1605909090)이 1,073~1,837(20~35%)천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참다랑어(피레트/냉동: 0304295000)이 58~170(5.3~15%) 천 달러, 참다랑어(냉동: 0303450000) 35~104(4.3~13.2) 천 달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총 수입 증대 금액은 1,214~2,179 천 달러이다. FTA 체결 시 터키의 수입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는 청어(냉동)의 경우 수출 증대액은 32~43천 달러(74~99%)증가하고 고등어(냉동)은 17~35천 달러(27~56%)증가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수출 증대 금액은 49~78천 달러이다.

관세율 할당제에 의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수입 증대효과로 일반 관세 철폐(수입증대액: 1,214~2,179, 수입증대량: 279~485)의 경우와 관세율 할당제(TRQ)비교 하였을 때, 시나리오 3-1)의 수입 물량 +50%, 관세 감축 -50%인 경우 (수입증대액: 1,366~2,473 수입증대량: 298~518) 관세 철폐 방식 보다 수입 증대가 크게 나타났으며, 시나리오3-2)의 수입 물량 -50%, 관세 감축 -25%의 경우 가장 작은 수입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수입증대

액: 304~549, 수입증대량: 63~109) 시나리오 2-1)의 수입 물량 +25%와 관세 감축 -50%의 경우 (수입증대액: 1,138~2,060 수입증대량: 247~431) 일반 관세 철폐와 근접한 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 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수출 증대 효과로는 일반 관세 철폐(수출증대액: 49~78, 수출증대량: 143~229)의 경우와 관세율 할당제(TRQ)비교 하였을 때, 시나리오 3-1)의 수입 물량 +50%, 관세 감축 -50%인 경우 (수출증대액: 55~88 수출증대량: 146~233) 관세 철폐 방식 보다 수출 증대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시나리오3-2)의 수입 물량 -50%, 관세 감축 -25%의 경우 가장 작은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수출증대액: 12~20 수출증대량: 30~47) 시나리오 2-1)의 수출 물량 +25%와 관세 감축 -50%의 경우 (수출증대액: 46~73 수출증대량: 121~194) 일반 관세 철폐와 근접한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 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논문은 부분 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품목별 대체 관계 및 보완 관계까지 살피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수입 수요 함수를 추정하였으나, 자료의 한계상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품목은 대세계 함수로 대체함에 따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상의 분석은 터키와의 FTA 체결 즉시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터키 FTA가 체결 된 후, 양허 스케줄표에 따른 수출입 증대 추정에 관한 향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재준 · 이한영, 정보통신관련 통상환경의 변화와 통상전략-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 통상법률(법무부), 2004, 4, pp.66
- 김미아. 한-칠레 FTA가 제조업수출에 미친 효과.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2호. 2008. pp47-63.
- 정인교 외, 한-터키 FTA와 경제 협력 증진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0-01, 2010,
- 최성일 · 최홍배, 한-싱가포르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분의 영향분석, 수산경영론집, 제35권 2호, 2004, pp.71-90.
- 김윤식, 부분균형모델에서 대체 효과를 고려한 FTA 효과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47권 제3호, 2006, pp.31-51.
- 오완근, 한-인도 FTA IT부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07, 2007, pp.1037-1056.
- 정명생 외, 전략적 FTA 추진 대비 수산부문 대응전략Ⅱ, KMI, 2009.
- 손수석, 지역주의 심화와 FTA 선호 이유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27권 1호, 2009, pp.27~46.
- 손병해, 경제통합론, 법문사, 1997
-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2002
- 박경석, 신지역주의의 특징, 지역개발연구, 제31권 제1호, 1999, pp.61-83
- 남종오 · 김수진, 공적분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수입수산물의 수요함수 추정: 관세감축 영향 분석,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2 no.1. 2010. pp.23-40
- 김동국, FTA 추진에 따른 한국 IT 산업의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4

- 장영수 · 김병호, 동북아지역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무역 진흥 전략, 수산경영론집, Vol.32, No.1, 2001, pp.125-149
- 강보경, 중력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무역창출효과,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4호, 2009, pp.1961-1974
- 곽창근 · 장종근 · 김혜진,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농식품부문에 미치는 영향: 중력모형 접근, 농업경제연구, Vol.51, No.1, 2010. pp.1-18
- 이병기, WTO/DDA 농업협상에 대응하는 국영무역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0권 제2호, 2003. pp.211-227
- 임정빈 · 홍승지, 우리나라 관세할당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농업경제연구, Vol.48, No.2, 2007. pp.135-176
- 김태훈 · 최세균, 농산물 관세감축과 TRQ 증량의 비교 분석, 농촌경제, 제33권 제1호. 2010. pp.1-20
- 정순태, 쌍무적 지역무역협정과 다자간 세계무역체제의 조화, 동계학술대회, No.1, 2007. PP. 87-106
- Baldwin. R,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NBER Working Paper, No. 4465.
- 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rgration, George Allen& Unwin Ltd, 1969
- Bhagwati.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 an overview,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rg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Bhagwati, David G, Arvinde P, Trading Preferentially: Theory and Policy, The Economic Journal, vol 108, 1998. pp.1128-1148
- Daniel Trefler, The Long and Short of the Canada-U.S. Free Trade

- Agree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4, 2004
- David W. Skully, Economics of Tariff-Rate Quota Administration
Economics Research Service USDA, 2001
- Fiorentino, Verdej & Toqueboeufet,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Discussion Paper,
No12. 2007. PP.8-10,
- Giap V. Nguten, Curtis M.J, Seafood Import Demand in the
Caribbean Region, Souther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in its series Annual Meeting, February 2010.
pp.6-9
- Robert Heller, International Trad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3
- Robson, Peter,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Fourth
Edition,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8.
- Roland, Marc, Chrintina, Tariff-Rate Quota and the economic
Impact of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tranational Atlantic Economic
Conference, 2000, pp.14-21
- Christphe J, Maria. Luca, Tariffs, TRQs and Import Composition:
The case of Beef Trade Between the EU and
Mercosur,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 Jeffery A Frankel, Regional Trading Blocs, In the world Economic
System(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7

- J. Tiberge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1965
- Keeneth Bailey, Zhen Wu, An Economic Model of U.S Imports of Butter and Milk Fat Product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Sociology in its series Staff Paper Series, 2005 with number 18846.
- Tha Pye Nyo,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Agriculture Sector in East Asia, Asian Community Research Center. 2009
- Todd Morath, Ian Sheldon, The Economic fo Modeling Tariff- Rate Quotas, USDA/ WTO Modeling Group, 1999.
- Scott L. Baier & Jeffrey H. Bergstrand, Economic determinants of free trade agre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64. 2004. pp.29-63
- Yvan Decreux, Maria Priscila, How does Tariff-Rate Quota modelling affect CGE result?, Agricultural Trade Agreements in its series Working Papers. 2007, vol 7206